

## 책임감리론



곽 병 근

정보시스템 관련 컨설팅 업무를 주 업무로 수행한지도 3년째 접어들고 있다. 전산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을 살려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생활을 해보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컨설팅 업무가 점차 감리업무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변화추세이다. 전산전문직에서 출발하여 관리, 경영업무를 거치면서 다양한 환경과 기술을 접한 정보처리전문가들이 전문지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 중의 하나가 감리업무가 아닌가 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아직 유아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전산감리 제도를

---

약력 : • 83~89 삼미전산(주) 상무이사 • 89~93 한국컴퓨터(주) 상무이사 • 93~95 쌍방울상사(주) 전무이사 • 95~97 연희정보통신(주) 전무이사 • 현재 진술시스템(주) 전무이사

계속 육성 발전시키는 것은 현재 정보처리 업계 일선에서 뛰고있는 전산인들의 몫이라고 생각된다.

국내 전산감리 제도는 한국전산원이 정부 전산개발 프로젝트에 제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전산감리에 대한 인식의 전기를 마련하였고 민간 감리인을 양성하여 정부 개발 프로젝트 감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민간 부문에서도 프로젝트 개발시 감리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개발감리가 초기에는 개발 완료 단계에서 검수활동의 일환으로 감리를 시행하였으나 개발과정의 미비점을 개발이 거의 끝난 시점에 지적함으로써 이를 수정 보완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작년 후반부터는 개발 도중에 1~2회의 중간 감리를 수행하여 예상 가능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보완하였고 민간기업의 경우 프로젝트 개발 초기부터 감리인을 참여시켜 감리 고유업무외에 컨설팅 기능도 수행케 하는 방안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발주측 일각에서는 결과에 대한 지적이나 평가보다는 개발 프로젝트에 깊이 개입되어 프로젝트 성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책임 감리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산개발 감리는 건설 감리와 발상의 개념은 유사하나 책임감리 면에서는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있다. 건설감리는 해당 공사의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에 대해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함으로써 공사결과에 대해 일정한 범위의 책임을 지는데 반해 전산감리는 현재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기초로한 소프트웨어 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감리인이 발주자를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책임감

리가 곤란하다는 일반적 논리를 수긍은 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지적하고 평가하는 현 감리방식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프로젝트 성공을 기여 또는 보증할 수 있는 책임감리에 대한 발주자들의 요구도 귀담아 들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그 동안 실제 감리업무 수행중에도 작업결과에 대한 지적과 의견만으로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데 힘의 한계를 느낀적이 많았다. 물론 모든 감리를 책임감리 방식으로 제도화 할 필요는 없겠으나 전산감리는 책임감리를 하기 곤란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책임감리를 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연구를 할 시점이라 하겠다. 주위 환경이 요구하면 다양한 형태의 감리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 및 방법을 개선, 발전시킴으로서 수요가 증대되고 활성화 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계기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할 때이다.

현재 한국전산원 위탁감리 대가가 원가에 못미치고 일감부족으로 인한 고질적인 과당경쟁에 의한 열악한 조건 개선도 시급한 해결과제이지만 이에 앞서 발주자가 감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환경조성도 시급하다고 하겠다.